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27:1-2  
2026년 2월 22일 오전 11시

## 그 날이 오면

< 주여 도우소서 >

‘그 날’은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종말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묵시록(24-27 장)의 마지막 장인 27 장에도 ‘그 날’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째, 1 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1 절). 이사야 27 장은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시는 같은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강조하는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모두 같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을 벌하신다는 것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리워야단은 라틴어 레비아탄(Leviathan)으로 거대한 바다 괴물입니다. 거대하지만 움직임이 둔하지 않고 뱀같이 빠릅니다. 그래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에 대해 욥기 41 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준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단혀 있구나. …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욥 41:15-21). 리워야단은 입에서 불을 내뿜습니다. 입에서 불을 내뿜는 바다 용, 리워야단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칼이 그에게 꽃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꽃히지 못하는구나”(욥 41:26). 인간의 칼로는 리워야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허나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입니다. 용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시 74:13).

이러한 리워야단은 단순한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앗수르와 바벨론 같은 혼돈 세력, 제국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언약 백성을 추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국적 혼돈 세력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계시 속에서 볼 때, 이러한 악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현 세상은 악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세력의 폭력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허락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탄의 악한 의도가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물론 잠시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악의 현장에 계셔서 그 고통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차마 아들의 고통을 보실 수 없어서 해를 가리셨습니다.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마 27:45). 이것은 자연적인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식이 3 시간이나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3 일 후 예수님의 부활로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날이 오면, 악을 일삼았던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이러한 악의 패배와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잠시의 이익 때문에 악의 편에 설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의의 편에 서고 나아가 화를 입는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2 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2 절).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 중 하나가 포도원과 포도원지기입니다.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됩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3 절).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사 5:2). 좋은 포도가 열리도록 때를 맞추어서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보았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담글 준비도 마쳤습니다. 드디어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들포도는 단순히 야생 포도가 아닙니다. 악취 나고 씹어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변질된 열매, 쓸모 없는 열매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7).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랐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는 포박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악한 짓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사 5:5). 포도원 울타리를 걷고 포도원 담을 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뜯기게 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하였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데 있지 않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심판 받았던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할에 있는 것이라”(사 27:9).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가루를 만들고, 우상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 아래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6 절).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열매가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계 15:2).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악에게서 벗어난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출 15:1). 모세의 노래는 18 절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출 15:18). 모세의 노래는 악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홍해 구원을 노래했듯이, 종말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을 노래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 15:4). 노래의 결론은 모든 민족이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사 27:13) 하나님께서 동쪽 앗수르 땅에서, 남쪽 애굽 땅에서 흩어진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종말적 모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여러분,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고 악에게 굴복하지 마시며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